

이상준 인터뷰

홍지석(미술비평)

2009년 5월 24일 일요일 오후 늦게 이상준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는 판화작가인 양정화도 함께 동참했다. 장소는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이상준의 작업실이다. 전시를 바로 앞둔 터라 그의 작업실은 작품 제작에 몰두하던 때에 비해 훨씬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 글은 그날의 인터뷰를 내 나름대로, 좀 과하게 말하면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먼저 나는 이상준이 어떻게 조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상준이 조각가가 된 것은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하게 된 것-그는 홍대 조소과 90 학번이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었을 테지만) 그는 줄곧 이 선택에 만족을 표해왔고 지금도 조각가로서 조각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답변은 이렇다.

이상준: 어릴 때부터 그림, 특히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였기 때문에 공군기지, 조종사, 정비사의 모습에 친숙했지만 비행기 조종사나 군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행동의 제약이 심한 군인의 삶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가족의 동의하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조덕현, 신옥주, 박정환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다. 이 무렵에 조각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입학 이후에는 흙이나 석재 같은 고전적인 재료나 그것을 다루는 방식보다는 오브제나 가볍고 새로운 재료들을 다루는데 훨씬 매력을 느꼈다. 이전에 비해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용인하고 심지어 권장했던 당시 홍대 조소과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이어 이상준의 조각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에게서 조각이란 무엇인가?

이상준: 내가 처음 본 조각은 어릴 적 대구 어느 공군기지 성당에서 보았던 성모상이다. 그 성모상은 때가 타고 벗겨져 있었으며 심지어는 녹물이 묻어 나오는 낡은 조각상이었다. 훗날에 내가 '진짜같은' 것들, 또는 '진짜'를 찾고자 했을 때 그 성모상의 모습은 내게 진실로 진짜같은 것으로, 그리움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전투기에 그려진 부대 마크,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흘러 굵히고 벗겨진 부대 마크가 주는 느낌이 그와 유사할 것이다.

이 대답에 따르면 이상준에게서 조각이란 먼저 환영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곧 그것은 환영이자 동시에 물질이다. 그렇다면 환영을 앞세우면서 동시에 물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상준이 말하는 조각이다. 물론 그는 이 양자가 철저히 하나가 되는

상황을 꿈꾼다. 그 이상적인 경지를 그는 스물여섯의 나이에 뒤늦게 경험한 군 생활에서 발견했다.

이상준: 처음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 주변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들은 내게 그저 이미지였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는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거기 놓여 있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갖고 있으며 모든 이미지들이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나프탈렌조차도 그랬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 이를테면 환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갖고 거기 있는 완전한 사물이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조각을 시작했을 때, 이상준이 원한 것이 바로 이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갖고 거기 있는 완전한 사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물을 제작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조각을 제작하는 조각가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것은 조각이어야 했다. 사물을 원하면서 조각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이전 세 차례 개인전 <Interfake>(1999), <real>(2001), <Tommy>(2004)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이자 화두였다.

이상준: 군 생활을 마치고 제작하기 시작한 Interfake 연작부터 Tommy 연작에 이르기까지 내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다른 어떤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사물’이었다. 그런 의도에서 처음에는 세탁기나 오토바이 같은 실제 사물의 이미지를 작품에 가져왔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는 사물이 아니라 사물의 이미지, 곧 환영이었다. 이를 의식하다보니 그 환영들을 자꾸만 작품에서 배제하게 되었다. Tommy 들은 그 귀결이다. Tommy 들은 Interfake 들처럼 ‘세탁기같은’ 것, 또는 ‘오토바이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Tommy’다. 완전한 형태, 견고한 광택을 지닌 매끄러운 Tommy 들은 심지어는 그것을 제작한 나 자신으로부터도 독립해 있는 독자적 존재들, 사물들이다. 그러한 규정이 독단적이고 주관적이라 해도 말이다.

내가 이상준을 처음 만난 것이 바로 이 Tommy 들을 세상에 내보인 직후였다. 이 때의 인상을 회고하자면 그는 이 무렵 Tommy 들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그에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열중하고 있었지만 산만했다. 최초에 보았던 성당의 성모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견고하고 깨끗한 것들을 만들고 다시 그 껍질을 벗겨내 지저분하게(!) 만드는 낯선 작업이 시작된다.

이상준: 언제부턴가 특 차고 남은 자국들, 작품에 쌓인 먼지들, 무심코 떨어진 담뱃재들이 눈에 들어왔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들 말이다. 그것은 우연적인 것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좀 더 리얼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작품에 얼룩이나 때를 묻히고 껍질을 벗겨내 보았다. 속이 시원했다. 어떤 해제된 느낌이랄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완성된 단계를 상정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는 존재했으나 의식하지 못했던, 손끝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느끼는 생생한 '나' 말이다.

대화에 양정화가 들어왔다. 그녀가 느끼는 이상준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유달리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를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사라짐을 두려워하는 조각가는 그 사라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상준: 호상(好喪)이라는 것이 있다. 웃음 지으며 보낼 수 있는 죽음 말이다. 예전에 한 친구가 그 호상에 대해서 상주(喪主)인 또 다른 친구에게 분노하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는 어쩌면 그리도 담담할 수 있어"라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인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사라진 것, 사라질 것을 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외부적 규정으로 나를 잃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내가 온전해질 수 없는 순간이다.

이상준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홍지석)가 해석하기로 "내(이상준)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공격당한 비둘기가 차에 치이고 그 사체를 또 다른 차가 밟고, 또 다른 차가 밟고...그러다가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는 나. 무언가가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건을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하는 나 말이다. 그러니 분명한 것, 진짜인 것, 생생하고 확고한 것이란 결국 재료를 만지고 느끼면서 그 재료들로 무언가를 짓는 '나'이다.

이상준: 내게는 정형화된 것에 대한 반감이 있다. 고정시킨다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투명하게 흐르는 것들에 자꾸 몰두하게 된다. 요즈음 나를 흥분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감정, 기억들이다. 그것을 간직하고 꺼내 봐주는 일, 그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고 진짜와 만나는 일이다.

이상준은 그의 네 번째 전시를 <Paradise lost>라고 명명했다. 작품 제목과 전시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첫 번째 전시다. 이러한 불일치는 내게는 '사물'에로의 정향에서 '사물을 짓는 나' 또는 '사물과 만나는 나'에로의 정향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나'는 고스란히 시간과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그 시간, 그 변화와 만나는 일을 이상준은 텍스타일의 직조, 또는 내러티브의 수용에 비유한다.

이상준: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편안하게 느껴지는, 하지만 가급적 오래가는 반영구적 재료들로 퍽퍽 붙여가며 만든다. 안에서 바깥으로 점점 무언가가 갖춰지기 시작한다. 그 안에서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어떤 것들이 우글우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뚝, 뚝, 뚝”하고 말이다. 대기원근이 없는 우주공간에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이라고 한다. 그 뒤죽박죽인 상황은 그러나 가장 리얼한 상황일 것이다.

다시 인터뷰의 첫 대목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상준이 어쩌면 유년시절의 강렬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던 그의 아버지처럼 전투기조종사 비슷한 무엇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그의 작업을 볼 때마다-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좌우, 상하가 분명치 않은 공중에서 이리저리 유영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상상하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버지의 자리에 앉은 소년은 천개(canopy)에서 이리 몰려왔다 저리 흩어지는 구름을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이다. 인터뷰를 끝나치고 가졌던 술자리에서 나는 계속 그 말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였다.